

건강 칼럼

일상 속 의심해야 할 질병 '위식도 역류질환'

가끔 속 쓰린 증상이 발생하다가 심해지거나 평소 헛구역질, 트림이 잦고 가슴이 쓰린 경우를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위식도 역류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음식이 일단 위로 들어가면 하부식도괄약근이 꼭 조여져 음식이나 위액이 식도 내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부식도 괄약근의 조이는 힘이 약하거나 잘못 열리면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며, 또한 역류된 위산을 다시 위로 내려보내는 식도의 보호 작용의 저하되어 있을 때도 위식도역류 질환이 발생한다.

위액의 산성도가 강하거나 양이 많을 때도 발생하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침의 양이 적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속쓰림 이외에도 목이 아프거나, 만성기침, 천식, 흉통, 목에 무언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면 위식도 역류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꼭 필요하다.

△원인과 증상



최영길
국모병의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과식, 폭식, 늦은 저녁식사, 식사 뒤 곧바로 눕기 등 나쁜 생활 습관도 원인으로 작용하며, 하부식도 괄약근의 조이는 힘이 약하거나 잘못 열림, 위 배출 지연, 담즙의 역류 그리고 비만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복부 비만의 경우 위의 압력을 증가시켜 역류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술을 자주 마시거나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 급하게 식사하는 사람,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위식도 역류질환에 잘 걸리게 된다. 식도의 내벽은 위산의 영향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면 열증으로 인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하지만, 지속되면 식도의 내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흉터가 남아 있어 소화관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방치했을 경우 발생 질환
위산이 지속적으로 역류하면 식도에 심한 열증을 동반하는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식도에 깊은 궤양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음식물을 삼킬 때 아프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도염이 지속되면 일부에서는 식도가 좁아지는 식도 협착이 발생하여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유발된다. 또한 Barrett식도라는 병이 있으며, 식도염이 치유되면서 식도 점막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질환을 말한다. Barrett식도는 적게

사설

제31회 호미회전(湖美會展)

제31회 호미회전(湖美會展)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기스락 2실에서 열렸다. 호미회(湖美會)는 '호남 미술인 연합회'를 줄인 말이다.

호미회(湖美會)는 처음 중등 미술교사 모임으로 출발했다. 호미회는 지난 1994년 9월 9일 전북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그 뒤 2024년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전시회를 열어 올해 31년을 맞았다.

전시는 대부분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1994년 11월 1일 제2회 한 해만 전북여성 일자리센터 '소소담' 전시실에서 개최한 바 있다.

호미회는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며 새로운 모임이 되었다.

호미회는 이번에도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제31회전을 마련했다. 이번 호미회전에는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이승백 고문 '세로토레의 실경'을 비롯 김용환 원로 '노안동의 봄', 고정순 '옥정호수', 김미자 '오월의 장미', 김병희 '평화', 김영남 '계곡', 문인구 '백조의 비상', 박선경 '그리움이 닿는 곳', 안순덕 '작약', 유명례 '나의 산책길', 장순자 '오솔길', 정문의 '단추', 하마다유미 '무제(無題)', 한지현 '여명', 황남현 '숲 속으로' 등이 선을 보였다.

이승백 고문은 개인전 1회, 2002년 교회 기념전을 비롯 한국 대표작가 초대전(인사동, 서울미술관) 등 국내외 그룹 및 초대전 350여회를 열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문, 목우회, 전미회, 호미회, 상촌회, 전북미술 원로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호미회는 31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변함없이 내실을 다지면서 꾸준히 발표전을 해 온 호미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명품백 사건 종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거수 표결에 부쳐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고,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의 건을 종결 8표 대 송부 7표로 종결됐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제재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 중 한 명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어느 비 상임위원은 "의결 후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며 "종결처

리에 책임지고자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사퇴한 위원은 지방자치대이 터연구소 소장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어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59.2%는 '권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익위 결정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 30대와 40대, 50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호남,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당 지지층, 국정 부정평가층, 진보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조선왕조실록 이안, 정읍 관광의 새로운 비전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체험과 지속가능이다. 이 두 개의 가치를 지역 사회로 옮겨보면 자연환경과 향토문화로 이어진다. 돌아보면 우리 정읍에는 놀랄 만큼이나 탁월한 가치를 지닌 자원이 여럿 있다. 내장산이라는 자연환경과 조선왕조실록 이안이라는 문화유산이 바로 그것이다.

내장산은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릴 만큼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단풍철이 되면 약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큰 인기를 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망라해 기록한 역사서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전란에도 정읍 태인의 선비 인의와 송홍록이 사재를 내어 전주사교에서 내장산 용굴 등으로 실록을 이안(移安)하고 수직(守直)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이안과 수

직이 아니었다. 후대에 귀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전달하려는 책임감. 그리고 국민의 위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나라를 지킨 용기와 결단에서 나온 행동하는 호국정신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이번 제2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문화유산 명품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정읍의 문화경쟁력은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다.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기록문화유산 18개 중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조선왕조실록 2개가 우리 정읍과 직접 연관이 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가지지 못한 자산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약무정읍시무민주(岩無井邑是無民主)'이라는 자긍심에 더해 이제 실록 이안을 통한 '약무정읍



이상길
정읍시의회 의원

시무실록(岩無井邑是無實錄)' 차려이다.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단풍철인 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 사계절 관광화가 자연환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향토문화와의 연계이다. 내장산이라는 훌륭한 자연경관에 실록 이안, 동학농민혁명 등 인문학적 가치가 입혀진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실록 이안의 역사와 문화도 브랜드

화하고 명품화해야 한다. 내장산 용굴암과 은적암 터, 인의와 송홍록의 묘소 등 주요 유적지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실록 이안길 걷기 행사 등 관련 행사의 기획과 확대 시행 등을 통해 기록문화의 중요성도 널리 알려야 한다.

안의와 송홍록의 이름을 딴 새 도로명을 제정해 볼 수도 있다. 정읍의 초안인 말고개 입구와 내장 IC에 '조선왕조실록 이안의 성지' 또는 '기록문화 보존의 성지' 입간판을 세우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400여년 전, 정읍의 선조들은 국가의 안위와 후손을 위해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행동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었던 경험도 있다.

실록 이안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문화유산 원석이다. 이를 갈고 닦아 후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